

- 전통시장 활로 개척을 위한 -
「굴러라! 감자원정대」 미국 LA 장터개설 결과

- 도내 전통시장 우수 특산품(대표상품)의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전통시장의 활로 개척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지난 5.24일 부터 3일간 미국 LA 한인타운 로데오상가에서 이동장터를 운영한 결과를 보고 드림

I 개설 배경

□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한 “굴러라! 감자원정대” 활약

- '11. 6월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전통시장 '굴러라 감자원정대'를 운영
- 도내 전통시장 우수 제품의 국외로 판매·홍보 마케팅 전략 필요

□ “굴러라! 감자원정대” 2단계 준비 필요

- '굴러라! 감자원정대'는 시행 2년 동안 참여업체 수는 크게 증가
 - 2년간 9회에 걸쳐 총 624,200천원 매출 달성
 - 사업 지난해 4회 운영에 51곳(회당 12.8곳)이 참여, '11년 5회 운영에 82곳(회당 16.4곳)이 참가해 업체 수의 지속적 증가
- 참여업체들의 실질적 매출 증대 효과는 아직까지 덜 나타나고 있으며, 해외시장 진출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

□ 미주 지역의 한인대상 향수(鄉愁)마케팅 수요 증가

- 이민 1세대 및 1.5세대의 고령화.
 - 평균 연령이 각 70대와 50대 이상으로 고령화
 - 전통시장의 주요 제품은 이들 세대에 판매가 적합한 제품이나, 현지에는 중국산 유사제품이 만연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
- ⇒ 이에, 강원도 전통시장 우수 제품을 직접 현장에서 판매하는 마케팅 전략 필요

II 장터개설 내용 및 성과

□ 개 요

- 기 간 : '13. 5. 24(금) ~ 26(일) / 3일간
- 장 소 : 미국 LA한인타운 로데오상가
 - ※ 위 치 : 3616 West 9th Street, Los Angeles, CA
- 개척단 : 11명(단장 : 경제정책과장)
 - 강원도(2) : 김지영 경제정책과장, 안중기 경제정책과 6급
 - 상인연합회(4) : 방승일 상인연합회장외2, 오세봉 도의원(경건위)
 - 무역관계자 등(5) : 엄광열 무역창업연구원장외2, 언론사 2
- 내 용 : 개장식, 전통시장상품 판매 및 홍보, 간담회(상공인, 도민회)

□ 참여시장 및 품목

시장별	업체명	품목군	품 명
횡성	안흥찐빵	빵류	안흥찐빵
			호박·흑미찐빵
	횡성조합	조미료	들기름
	엔초이스	마죽	호박·은행마죽프리미엄
삼척	너와머루와인마을	건나물	버섯더덕마죽골드
			취나물, 감자떡, 청국장
화천	건국건강영농 조합법인	비타민	화천블루베리비타민
		감자떡	화천토마토비타민
			블루베리·토마토감자떡
강릉	동원씨푸드	오징어	반건조오징어
		흑마늘	홍진미채
	군포농산		흑마늘
	원흥물산	황태	황태채, 황태포(3미)
속초	설악청정순대	오징어	오징어순대(통)
			오징어순대(슬라이스)
	정이푸드빌	젓갈류	명란, 오징어젓
			명태회무침
			낙지, 창란젓
		반찬류	양념깻잎, 무말랭이
	태양수산	코다리	코다리

□ 주요성과

【 현장판매 】

○ 전통시장 상품의 현장판매를 통해 총 65,000\$의 매출을 달성

- 안홍전빵, 젓갈 및 코다리 등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반응이 높아 2박3일 짧은 행사기간에도 불구하고 높은 판매율 올림
- 코다리, 청국장, 감자떡 등 일부 품목은 조기 품절되어 뜨거운 반응을 보였음

○ 통관 보류 제품으로 인해 제한적 판매 실시

- 행사 제품들은 그간 통관이 원활히 진행되었던 제품과 전통시장에서 추천하는 제품으로 품목을 구성
- 금번 행사 물품 중 기존에 반입이 되지 않았던 코다리, 비타민 등의 품목이 미 FDA(미국연방식품의약국) 검사로 인해 행사기간 동안 통관이 지연
- 이로 인해 약 42,000\$에 해당하는 제품이 판매가 불가능하여 현장판매 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타남

※ 해당 제품(42,000\$량)은 미주 현지 상설매장에 인수

⇒ 현장판매와 현지인수를 포함하여 총 107,000\$의 판매고를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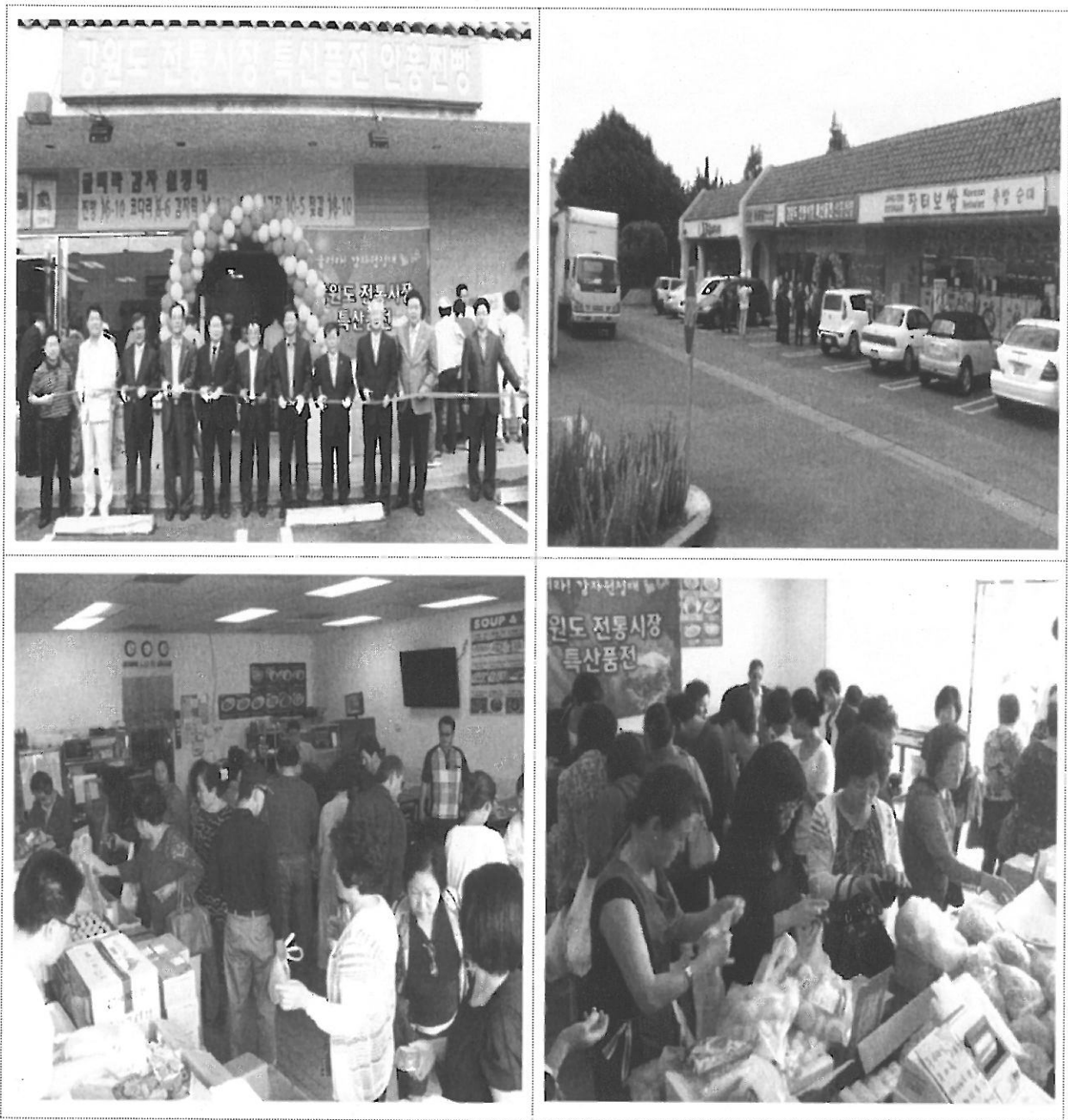
○ ‘굴러라! 감자원정대’ 현지운영으로 한인교포들의 높은 참여율과 상품 홍보

-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기존 한인 마켓에서 많은 지자체 제품 특판 행사 개최, 일부는 저가의 중국산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등 행사운영에 대한 불신도 있었음
- 본 행사는 전통시장의 제품을 직접 거래하는 컨셉으로 강원도 제품에 대한 믿음을 높여주는 계기 마련
- 현지 교민 중 연령대가 높은 고객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행사마련 요청 제안(3일간 내방객 수 15,000여명)

【 수출계약 】

- 판매 호응도가 높은 전통시장 제품의 정기 수출계약 추진
 - 현지 상설판매장을 통한 지속적인 판매와 더불어 미국 내 타 지역 마켓으로 유통을 위한 수출계약 검토
- ⇒ 글로벌사업단과 세부적인 협의 후 추진 검토

《 개장식 및 장터개설 사진대지 》



【 강원도민의 밤 행사 개최 】

- 일 시 : '13. 5. 24(금) 19:00 / 30명
 - 장 소 : 한인타운 내 노블(Novel)
 - 참 석 : 30명(재미강원도민회원, 연구원관계자, 언론사 등)
 - 주 최 : 강원도
 - 주 관 : (사)강원무역창업연구원, 재미강원도민회
 - 내 용 : 도민회원과의 간담회를 통한 효과성 제고 논의, 현지
시장조사 등 품목별 선호 식품 위주로 성과제고 진행 등
 - 이수복 전도민회장 6.16일부터 LA도민 2세 50여명 인솔 강원도 방문계획
 - 최충희 수산업사장은 도루묵 팔아주기운동 관련 적극 협조계획
 - 허창배 사장은 주류도매업을 하는 최영천 시장을 소개 양구 솔래원 송아주 수출연결
- ⇒ 향후, 강원도 전통시장 상품 등 기업의 미국진출 지원방안 상호협의

《 도민의 밤 행사 사진대지 》



1. 성공요인 분석

□ 현지 네트워크와 협업

- 기존 마켓 중심의 행사와 달리 현지 네트워크 협업 추진
 - LA 현지 거주 춘천닭갈비 주문권대표(주문진 출신)과 금번 행사를 협업으로 추진
 - 기존 마켓방문 고객이 존재하는 마켓행사와 달리 광고, 언론을 통해 충분한 강원도 특산품을 선호하는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검증
- 안홍전빵과 감자떡 등 매장에서 테이크아웃 형태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은 지속적으로 판매 추진 검토

□ 공격적인 마케팅

- LA 주요 일간지, 라디오 및 TV 광고 실시
 - 강원도 특산품에 대한 지역 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였고, 향후 판매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 기대
- 재미강원도민회 및 한인교회를 통한 입소문 마케팅
 - 행사 기획단계부터 재미강원도민회에 협력 요청과 행사기간 도민회에서 자원봉사 인원이 투입되어 원활한 행사 진행
 - 주변 지인 및 한인교회를 통한 입소문 마케팅을 전개하여 단기간에 많은 모객 효과를 얻음

2. 미흡요인 분석

□ FDA(미국연방식품의약국) 검사로 인한 통관지연

○ 반건조 오징어, 비타민, 황태의 FDA 검사

- 금번 행사는 전통시장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제품 선정
- 해당 제품군의 서류 및 표기 미비로 인해 전체 컨테이너에 대한 FDA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현장 판매를 할 수 없었음(30% 마진 손실)

□ 장소 허가 관련 미비사항

○ 행사장소의 이벤트 사전 허가 미취득

- 기존 마켓 행사에서는 행사관련 사전 허가를 취득하는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가능 추진
- 동 행사장소는 기존 식당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식품의 취식이 가능한 장소이며, 지속적인 행사가 아닌 이벤트성 행사로 별도의 허가절차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행사 개장일 LA카운티 위생국에서 점검 받음
- 이에, 현장에서 임시 허가서를 받는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3. 향후 계획

□ 권역별 확장 전략 수행

○ 한인 밀집 시장인 미주지역에서 시작 후 확대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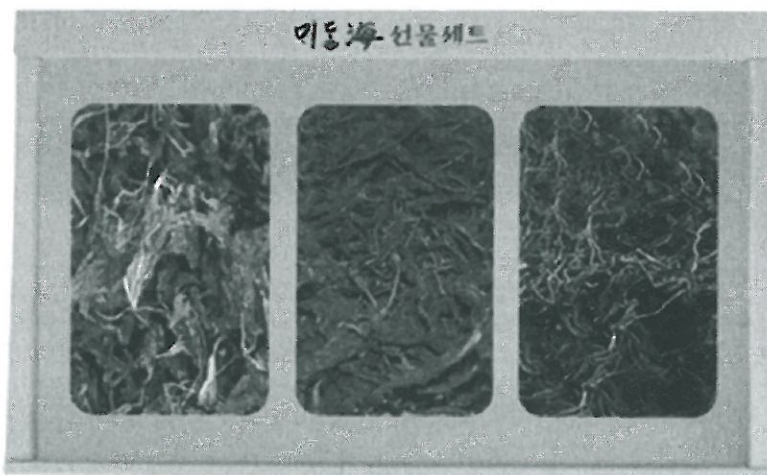
- 2013년 시범사업으로 미주 지역 전통시장 행사 실시
- 2014년 기타 지역(미동부)으로 시장 확대

⇒ 전통문화 홍보 행사와 병행하여 축제 형태로 확대 검토

- 찾아가는 장터와 마켓 입점 투 트랙(Two-Track) 전략
 - 전통시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기존 찾아가는 장터의 정례적 운영
 - ⇒ '14년 부터 반기 또는 년 1회로 순차적으로 늘리는 전략추진
- 전통시장의 제품 중 마켓 판매가 가능한 제품은 미국 내 상설 판매장 구축을 추진
- 전통시장 고유의 포장 또는 다양한 상품개발이 필요
 - ⇒ 이에, 단기적으로는 기존 마켓 또는 강원도특산품 상설매장을 활용하는 이원화 전략 검토

□ 전통시장 제품의 글로벌 규격화 및 현지화

- 다양한 수출 상품 및 포장 개발
 -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국제 규격의 인증 절차와 수출에 적합한 상품 및 포장개발이 필수
 - 해외 시장 수출을 위한 규격화 및 표준화를 통해 국내 전통시장 상품의 품질 및 포장개선에 활용
 - 정선전통시장 산나물 선물세트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이는 국내 및 해외에서 판매가 가능한 규격화 사례임



※ 정선전통시장 제품은 4가지 나물로 구성되며 가격대는 15,000원대로 제작 중임

■ 연합뉴스

강원 전통시장 상품 '감자원정대' 미국 LA 상륙

| 기사입력 2013-05-21 10:42

도내 5개 전통시장 30여 제품 판매...수출 통로 구축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굴러라! 감자원정대'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시장에 상륙한다.

도는 오는 24일 LA 한인타운 내 실내·외 500여㎡에 마련한 특설판매장에서 찾아가는 전통시장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감자원정대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전통시장의 외국 첫 전통시장 개척으로, 전통시장 대표상품을 LA 시민에게 선보인다. 지난 2월 강릉중앙시장, 강원무역창업연구원, 도 글로벌사업단 등이 미국 LA 한인타운과 서부지역에서 전통시장 제품 10만 달러 어치를 수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번 LA 감자원정대에는 강릉중앙시장과 속초관광수산물시장, 횡성시장, 삼척시장, 화천시장 등 5개 시장이 참가한다. 각 시장의 특산품인 오징어와 코다리, 오징어순대, 청국장, 취나물, 안홍편빵, 감자떡 등 30여 개 품목을 선보일 예정이다.

강원도의 맛을 현장에서 즐길 수 있도록 시식코너를 운영,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사물놀이 등 한국 전통문화행사 등 도의 푸짐한 인심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다.

전국 최고의 휴양지로 잘 알려진 도의 모든 관광정보를 한눈에 얻을 수 있도록 강원도 관광문화를 홍보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특히 중소 바이어들과 한인기업, 한인도민회 등을 상대로 상담 등을 통해 도매업자를 발굴, 도 전통시장 우수상품을 지속 연결하는 등 외국 수출 통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LA 한인타운 내에 500㎡ 규모의 상설매장 설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LA 감자원정대 진출을 계기로 국내는 물론 외국에까지의 판매전략을 구축하는 한편 앞으로 뉴욕, 워싱턴 등 미국의 다른 도시를 비롯해 러시아, 중국, 일본 등으로 새로운 판매처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감자원정대는 도내 농수특산품을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9회에 걸쳐 133개 업체가 참여해 6억2천400만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limbo@yna.co.kr

■ 강원도민일보

강원 특산품 미국 LA서 '인기몰이'

‘굴러라! 감자원정대’

한인타운 상가서 판매 첫날 매출 목표 150% 돌파 2013.05.27



▲ 강원도와 도 상인연합회, 강원무역창업연구원 등은 24일(현지시간) 방승일·오세봉 강원도의회 의원, 김지영 도 경제정책과장, 강신환 강릉중앙시장 번영회장 등 감자원정대 관계자들과 박신환 주 로스앤젤리스 영사, 정동철 재미 강원도민회장을 비롯한 현지교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LA 한인타운 로데오 상가에서 ‘굴러라! 감자원정대, 강원도 전통시장 특산물 판매장’을 열었다. LA/조형연

강원도 전통시장 농·수·축산물이 미국 LA에 상륙,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강원도와 도 상인연합회, 강원무역창업연구원 등은 24일(현지시간) 미국 LA 한인타운 로데오 상가에서 ‘굴러라! 감자원정대, 강원도 전통시장 특산물 판매장’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강원도 전통시장 판매장 개소식에는 방승일·오세봉 강원도의회 의원, 김지영 도 경제정책과장, 강신환 강릉중앙시장 번영회장 등 감자원정대 관계자들과 박신환 주 로스앤젤리스 영사, 정동철 재미 강원도민회장을 비롯한 현지교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MUTUAL TRADING 등 현지 식품유통회사 관계자들도 특산물 판매장을 방문, 강원도 전통시장 특산품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특산물 판매장은 약 100㎡ 규모로 조성됐으며 매장 입구에는 감자떡과 안홍편빵, 젓갈류 시식코너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 청국장과 코다리, 젓갈류, 감자떡, 안홍편빵 등이 교민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특히 청국장은 첫 날에만 600여개가 판매되면서 준비 물량의 70%가 소진됐으며 코다리와 젓갈류의 판매도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엄광열 강원무역창업연구원장은 “전통시장 특산품에 대한 처음의 우려와 달리 첫 날 매출액이 1만 7000달러를 나타내면서 목표 매출액의 150%를 넘어섰다”며 “주말에도 오늘과 같은 판매실적을 올린다면 3일동안 5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지영 도 경제정책과장은 “도 전통시장 특산품은 현지 교민들의 정서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청정지역의 안심먹거리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활발히 판매되고 있다”라며 “이번 감자원정대를 통해 미국 교민사회에 강원도 특산물이 최고의 웰빙식품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A/조형연

■ 강원일보

[굴러라 감자원정대 美 LA 특산물전]이모저모
원로회원 대거 참석 잠시 고향생각 2013-5-27

◇행사장에는 재미도민회를 이끌었던 원로 회원들이 대거 참가해 눈길. 춘천고 24회 졸업생이라는 이수복(83) 전 재미도민회장은 “태평양을 건너온 품질 좋은 도내 전통시장 상품들을 맛볼 수 있어 너무 기쁘고 오랜만에 제대로 된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 또 춘천이 고향이라는 한범수씨, 속초가 고향인 최충희씨 등 재미도민회 원로들이 부인들과 행사장을 찾아 눈길.

춘천에 있는 강원고 1회 졸업생이라고 소개한 샌디 김(63·한국이름 김복천)씨는 “1971년 TBC TV 9기 탤런트로 데뷔해 20여 편의 드라마에 출연하고 음반도 냈었다”며 “고향 음식을 오랜만에 맛보니 미국을 건너오기 전까지 춘천 육림·중앙 등에서 공연을 하던 옛 생각이 문득 떠오른다”며 회상에 잠기기도.

향우에도 지원·홍보 적극 앞장 약속

◇굴러라 감자원정대 LA 특판전 첫날 행사가 끝난 뒤 가진 만찬 자리에는 감자원정대 관계자 및 재미 도민회원 등 30여명이 모여 식사를 하며 앞으로 ‘굴러라 감자원정대’가 나아가야 할 방안 등을 모색. 이 자리에서 이병만 재미도민회 소속 강원도협력관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상품의 질을 높이고 품목도 다양화해 지속적으로 특판전을 열 수 있길 바란다”며 “언제든지 도민회는 최선을 다해 홍보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

이에 대해 오세봉 도의원은 “강원도 특산품들이 미국내 한인사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우려가 해소될 정도로 반응이 너무 좋았다”며 “앞으로도 도와 재미 도민회간의 좋은 관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

강원도민일보

강원 농특산물 미국 공략 나섰다

감자원정대 美 LA 상륙

재미 강원 도민회 환영식

전통시장 개설 특판 행사 2013.05.25



▲ 재미강원도민회(회장 정동철·사진 앞줄 왼쪽 네번째)가 주최한 ‘굴러라! 감자원정대’ 환영식이 23일(현지시간) 방승일·오세봉 강원도의회 의원, 김지영 도 경제정책과장, 엄광열 강원도무역창업연구원장, 강신환 강릉중앙시장 번영회장 등 감자원정대 관계자들과 이윤수 강원도 명예협력관 등 LA 도민회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LA한인타운 내 음식점서 열렸다.

‘굴러라! 감자원정대’가 강원도민들의 환영속에 LA에 상륙했다.

재미강원도민회(회장 정동철)는 23일(현지시간) LA한인타운 시골집에서 ‘굴러라! 감자원정대’ 환영식을 열고 강원도 전통시장 제품의 성공을 기원했다.

방승일·오세봉 강원도의회 의원, 김지영 도 경제정책과장, 엄광열 강원도무역창업연구원장, 강신환 강릉중앙시장 번영회장 등 감자원정대 관계자들과 정동철 재미 강원도민회장, 이윤수 강원도 명예협력관 등 LA 도민회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환영회는 24일부터 열리는 감자원정대의 성공적인 개최와 향후 도와 도민회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정동철 회장은 환영사에서 “강원도의 감자원정대가 LA를 방문한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사건”이라며 “미국 시장을 직접 체험하고 강원도와 도민회간의 협력을 강화 할 수 있는 기회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승일 의원은 답사를 통해 “강원도를 대표해 미국 무대에서 성공신화를 써내려 가는 도민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다”며 “강원도 전통시장제품들이 미국에서도 빛날수 있도록 도민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영 과장은 “미국 현지에 감자원정대의 첫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도와준 도민회의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 좋은 성과를 올려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굴러라! 감자원정대’는 그동안 수도권과 유명 관광지를 대상으로 총 9회를 운영, 133개업체가 참여해 모두 6억24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24~26일 3일간 미국 LA 한인타운 로테오 상가에서 강원도 전통시장 장터를 개설하고 특판 행사를 벌인다. 감자원정대의 해외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형연 sunjo@kado.net

강원도민일보

강원 특산품, LA서 10만달러 팔았다
감자원정대 한인타운 특판전 '성료'
청국장·닭강정 등 전품목 인기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 '확인'



▲ ‘굴러라! 감자원정대’ 강원도 전통시장 특산품 판매장을 방문한 고객이 1만5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폐장일인 26일(현지시간) 현지 판매장은 강원도 특산품을 구입하려는 고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LA/조형연

‘굴러라! 감자원정대’가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열린 강원도 전통시장 특산품전에서 대박을 터트리며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강원도와 도 전통시장연합회, 강원무역창업연구원은 23~26일까지 3일동안 ‘굴러라! 감자원정대’ LA현지 강원도 특판전을 통해 현장판매 6200만원(5만5240달러)과 LA현지 식품매장 공급분 4000만원(3만5640달러) 등 모두 1억200만원(9만880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첫날 1900만원(약 1만700달러)의 매출로 출발한 감자원정대는 미국 현지 메모리얼데이 특수를 맞아 이들 동안 8300만원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면서 당초 목표매출액 1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개장 이래 감자원정대가 준비한 청국장이 모두 팔려나가면서 대박을 예고, 이후 코다리, 감자떡, 안홍찜빵, 젓갈류, 황태포, 고사리, 반건조 오징어 등 전 품목이 인기를 끌었으며 특히 닭강정과 닭갈비 등 시식코너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다양한 품목의 해외진출 전망을 밝게 했다. 또한 특산품전 마지막 날에는 한인타운내 식품판매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준비한 물품을 모두 소진했다. 이처럼 감자원정대는 첫 해외진출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오는 6월 준비중인 LA현지 상설매장 개장도 탄력을 받게 됐다. 뿐만 아니라 뉴욕과 워싱턴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미국 현지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으며 성공 가능성 검증에도 합격점을 받았다. 엄광열 강원도 무역창업연구원장은 “LA에서 열린 강원도 전통시장 특산품전을 발판삼아 미국 전역으로 강원도 물품이 파고 들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더 연구하겠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5건의 추가계약이 논의되고 있으며 상설매장이 개장하면 추가적인 공급계약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김지영 도 경제정책과장은 “강원도 전통시장 음식들을 LA까지 와서 판매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미국 현지의 교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달라스 한인회 등 여러지역 교민들이 강원도 전통시장 제품에 관심을 표현한 만큼 이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A/조형연 sunjo@kado.net

강원일보

교포들 '싸고 품질 좋아' 뜨거운 반응

전통시장 길을 찾다 (1)수출 꿈이 현실로 2013-6-10



◇지난달 24일부터 26일(미국 LA 현지시각)까지 미국 LA 한인타운 내 로테오 상가에서 열린 '글러라 감자원정대 LA 특관전'의 성공에 힘입어 도내 전통시장 물품 수출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LA감자원정대 대성공
전통시장 경쟁력 확인
해외 상설매장 본격 추진
포장·유통 개선 등 과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통시장. 어렵고 힘들다는 목소리만 들려오던 이곳에서 최근 희망이 솟아나고 있다. 전통시장 제품을 수출하기도 하고, 공동 할인행사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이 스스로 활로 찾기에 나서는 모습과 보완점, 대책 등을 세차레로 나눠 보도한다.

도내 전통시장 상품이 미국 본토에 진출하면서 꿈이라고만 여겨졌던 전통시장 상품의 본격적인 해외 진출이 성사됐다.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펼쳐진 '강원도표' 전통시장 상품 특관전이 현지 한인들의 관심 속에 막을 내렸다.